

산림청,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 계획 발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25.1.21.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으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 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산림재난에 대한 총력 대응이다.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산불 진화 능력을 강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고, 목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내외 산림탄소 흡수를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500만 톤의 국외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활성화다. 임도를 신설하고, 사유림 매입을 통해 규모화된 산림경영 구조를 강화한다. 네 번째 전략은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정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토대로 산림청은 산림부분 민간시장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복지 전문 분야의 창업 지원과 산림치유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여 산림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 신규 산업인 ‘산림경관 서비스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산림경관에 기반한 각종 입지 선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산림탄소 축적 증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

** 산림경관에 기반해 각종 입지 선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신규 산업



2025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출처: 산림청. (2025).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1월 21일 보도자료.